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 준비

전 기 택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junkt@kwdi.re.kr)

1.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분포
 -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경제활동 상태
2.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 분포
 - 종사상 지위별 분포
 - 취업시간별 분포
 - 산업별 분포
 - 직업별 분포
3. 청년층 남녀의 취업 준비
 - 직업 훈련 경험
 - 직업 훈련 기관
 -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 취업 시험 준비

목 차

1. 청년층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

■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분포	1
■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경제활동 상태	2

2.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 분포

■ 종사상 지위별 분포	4
■ 취업시간별 분포	5
■ 산업별 분포	6
■ 직업별 분포	7

3. 청년층 남녀의 취업 준비

■ 직업훈련 경험	8
■ 직업훈련 기관	9
■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10
■ 취업 시험 준비	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2005. 5. 2006. 5) 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보도자료(2005, 2006).

표 목 차

<표 1>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분포	1
<표 2>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	2
<표 3> 재학·휴학 청년층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	3
<표 4>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4
<표 5> 졸업·중퇴 남녀 취업자의 취업시간별 분포	5
<표 6>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6
<표 7>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7
<표 8> 청년층 남녀의 직업훈련 경험 시기	8
<표 9> 청년층 남녀의 직업훈련 참여 기관	9
<표 10> 청년층 남녀의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기간 : 2006년	10
<표 11> 청년층 남녀의 직장 체험 형태	11
<표 12> 청년층 남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시험 준비 분야 : 2006년	13

그 림 목 차

<그림 1> 청년층 남녀의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비율	10
<그림 2> 청년층 남녀 비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취업 시험 준비 비율: 2006년	13

▣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 준비 요약▣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서 청년층의 직업세계 이행(school to work)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음.

이에 통계분석 06-9에서는 통계청의 2005년,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만 15~29세 남녀) 결과에 대한 성별 분리 분석을 통해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와 취업 준비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청년층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

-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분포:** 청년층 여성은 절반 이상이 졸업자, 남성은 절반 이상이 재학 및 휴학자

- 청년층 여성 가운데 졸업자의 비중은 2005년 57.4%, 2006년 56.0%임.
- 청년층 남성 가운데 재학 및 휴학자의 비중은 2005년 52.1%, 2006년 54.0%임.

-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경제활동 상태:**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으나, 남성은 증가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899천명에서 2006년 875천명으로 24천명 감소함. 같은 기간 여성 졸업·중퇴자의 실업률도 6.6%에서 6.1%로 0.5%p 감소함.

재학·휴학 중인 청년층 여성의 실업률이 2005년에 비해 2006년 2.3%p 증가

- 2005년 12천명이었던 재학·휴학 청년층 여성 실업자는 2006년 18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3.7%에서 6.0%로 2.3%p 증가함.
- 같은 시기 재학·휴학 청년층 남성 실업자는 25천명에서 23천명으로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6.0%에서 5.6%로 0.4%p 감소함.

2.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 분포

- **종사상 지위별 분포:** 2005-06년,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 증가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2.7%에서 2006년 57.1%로 증가하였음.
- 반면 같은 시기 임시근로자는 36.5%에서 33.2%로, 일용근로자는 4.6%에서 3.7%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 **취업시간별 분포:**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가운데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 감소

- 2005년 졸업·중퇴 여성 취업자 가운데 9.3%였던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2006년 7.8%로 감소함.

- **산업별 분포:** 여성은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음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중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2005년 37.9%, 2006년 39.5%로 나타남.
- 같은 시기 남성의 31.8%, 28.6%가 제조업에 취업 중이었음.

- **직업별 분포: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의 1/3 이상이 사무직에 종사**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중 사무직 종사자 비중은 2005년과 2006년 모두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졸업·중퇴 청년층 남성 취업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직종으로는 2005년 장치제조업(17.7%), 2006년 사무직(17.7%)으로 나타남.

3. 청년층 남녀의 취업 준비

- **직업훈련 경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이 높음**
 - 청년층 여성 중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이 2005년 20.6%, 2006년 19.4%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청년층 남성 중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은 13.5%와 12.9%로 나타남.
- **직업훈련 기관: 여성의 공공직업훈련기관 이용률이 남성보다 낮음**
 - 여성 직업훈련 경험자 중 공공직업 훈련기관 이용자는 2005년 9.0%, 2006년 8.6%로 나타남.
 - 같은 기간 남성 직업훈련 경험자의 21.8%와 20.6%가 공공직업 훈련기관을 이용함.
-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비율은 청년층 여성이 남성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청년층 여성의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비율은 2005년 44.3%, 2006년 42.4%로 나타남.
 - 같은 기간 남성의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비율은 43.7%, 40.1%로 나타남.
- 청년층 남녀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을 함**
 -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을 한 청년층 여성 중 시간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비율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56.2%,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을 한 청년층 남성 중 시간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58.5%,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시험 준비: 일반 기업체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약 절반에 불과**
 - 2006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9.7%가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시험 준비 중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9.2%가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임.
 - 일반 기업체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 비율은 11.0%로, 남성 20.9%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1. 청년층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

■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분포*

청년층 여성은 절반 이상이 졸업자, 남성은 절반 이상이 재학 및 휴학자

- 2005년에 비해 졸업자의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청년층 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표 1> 참고).
- 2005년 청년층 여성 가운데 졸업자의 비중은 57.4%, 2006년에는 56.0%를 차지함.
 - 반면 재학자의 비중은 2005년 36.2%, 2006년 38.5%, 휴학자의 비중은 2005년 3.4%, 2006년 2.8%로 나타남.
 - 청년층 남성 가운데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2.4%, 2006년 40.3%로 나타남.
 -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청년층 남성 가운데 재학 및 휴학자의 비중이 각각 52.1%와 54.7%로 2.6%p 증가함.

<표 1>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분포

(단위: 천명, %)

		전체	졸업	중퇴	재학	휴학	기타
2005	여성	5,141 100.0	2,952 57.4	150 2.9	1,862 36.2	174 3.4	3 0.1
	남성	4,785 100.0	2,028 42.4	263 5.5	2,042 42.7	451 9.4	2 0.0
	전체	9,926 100.0	4,980 50.2	413 4.2	3,903 39.3	625 6.3	5 0.0
2006	여성	5,070 100.0	2,838 56.0	134 2.6	1,953 38.5	144 2.8	2 0.0
	남성	4,765 100.0	1,918 40.3	271 5.7	2,131 44.7	443 9.3	1 0.0
	전체	9,835 100.0	4,756 48.4	405 4.1	4,085 41.5	587 6.0	3 0.0

* 졸업 및 중퇴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시점 당시의 전체 졸업 및 중퇴자를 의미함.

■ 청년층 남녀의 재학 상태별 경제활동 상태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으나, 남성은 증가

- 2005년에 비해 남녀 모두 졸업·중퇴자의 2006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감소하였음(<표 2> 참고).
- 2005년 여성 졸업·중퇴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0%였으나, 2006년 70.6%로 약 0.5%p 감소하였음.
 - 실업률도 2005년 6.6%에서 2006년 6.1%로 0.5%p 감소함.
 - 같은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83.6%에서 82.7%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여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4천명 증가하였고, 감소폭도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큼.
 - 한편 실업률은 2005년 9.2%에서 2006년 8.9%로 0.4%p 감소하였음.

<표 2>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명, %, %p)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05	여성	2,203	2,057	146	899	71.0	6.6
	남성	1,916	1,739	177	375	83.6	9.2
	전체	4,119	3,796	323	1,273	76.4	7.8
2006	여성	2,097	1,969	129	875	70.6	6.1
	남성	1,810	1,649	160	379	82.7	8.9
	전체	3,907	3,618	289	1,254	75.7	7.4
전년대비	여성	-106	-88	-17	-24	-0.5	-0.5
	남성	-106	-89	-16	4	-1.0	-0.4
	전체	-212	-178	-34	-20	-0.7	-0.4

재학·휴학 중인 청년층 여성의 실업률이 2005년에 비해 2006년 2.3%p 증가

- 재학·휴학 중인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은 증가하였음(<표 3> 참고).
- 2005년 16.1%였던 재학·휴학 중인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6년 14.4%로 1.7%p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86천명 증가하였음.
 - 그리고 2005년 12천명이었던 실업자는 2006년 18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3.7%에서 6.0%로 2.3%p 증가함.
 - 한편 같은 시기 재학·휴학 중인 청년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16.4%에서 2006년 16.0%로 0.5%p 감소하였음.
 - 또한 재학·휴학 중이 청년층 남성의 실업률은 같은 시기에 6.0%에서 5.6%로 0.4%p 감소하였고, 취업자는 3천명 증가하였음.

<표 3> 재학·휴학 청년층 남녀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명, %, %p)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05	여성	329	316	12	1,708	16.1	3.7
	남성	409	385	25	2,083	16.4	6.0
	전체	738	701	37	3,791	16.3	5.0
2006	여성	303	285	18	1,794	14.4	6.0
	남성	411	388	23	2,164	16.0	5.6
	전체	714	673	41	3,958	15.3	5.7
전년대비	여성	-26	-32	6	86	-1.7	2.3
	남성	2	3	-2	81	-0.4	-0.4
	전체	-24	-28	4	167	-1.0	0.8

2.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 분포

■ 종사상 지위별 분포

2005-06년,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 증가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의 50% 이상이 상용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음(<표 4> 참고).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2.7%에서 2006년 57.1%로 증가하였음.
- 또한 자영자의 비중은 2005년 2.8%에서 2006년 3.2%로 0.4%p 증가하였음.
- 반면 같은 시기 임시근로자는 36.5%에서 33.2%로, 일용근로자는 4.6%에서 3.7%로, 고용주는 0.5%에서 0.4%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 남성 역시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50% 이상이지만, 2005년 52.8%에서 2006년 51.4%로 1.4%p 감소하였음.
- 한편 같은 시기에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31.3%에서 33.4%,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6.9%에서 7.2%로 증가하였음.
- 그리고 고용주의 비중은 1.4%로 유지되었고, 자영자의 비중은 4.7%에서 4.2%로 감소하였음.

<표 4>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단위: 천명, %)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종사자
2005	여성	2,057	1,083	750	95	10	57	61
		100.0	52.7	36.5	4.6	0.5	2.8	3.0
	남성	1,739	919	545	120	24	81	49
		100.0	52.8	31.3	6.9	1.4	4.7	2.8
	전체	3,796	2,002	1,295	216	34	138	110
		100.0	52.8	34.1	5.7	0.9	3.6	2.9
2006	여성	1,969	1,124	654	72	8	63	48
		100.0	57.1	33.2	3.7	0.4	3.2	2.4
	남성	1,649	848	551	118	24	70	37
		100.0	51.4	33.4	7.2	1.4	4.2	2.3
	전체	3,618	1,972	1,205	191	32	133	85
		100.0	54.5	33.3	5.3	0.9	3.7	2.4

■ 취업시간별 분포

남성과 달리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가운데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 감소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가운데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크지만, 2006년 전년에 비해 그 비중이 감소함(<표 5> 참고).
- 2005년 졸업·중퇴 여성 취업자 가운데 9.3%였던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2006년 7.8%로 감소함.
 - 반면 같은 시기 남성 취업자 가운데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중은 4.2%에서 4.4%로 0.2%p 증가하였음.

<표 5> 졸업·중퇴 남녀 취업자의 취업시간별 분포

(단위: 천명, %)

		전체	주 1-35시간	주 36시간 이상
2005	여성	2,057	191	1,866
		100.0	9.3	90.7
	남성	1,739	74	1,665
		100.0	4.2	95.8
	전체	3,796	265	3,531
		100.0	7.0	93.0
2006	여성	1,969	154	1,814
		100.0	7.8	92.2
	남성	1,649	72	1,577
		100.0	4.4	95.6
	전체	3,618	226	3,392
		100.0	6.3	93.7

■ 산업별 분포

여성은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남성은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가운데 가장 다수인 공공개인사업서비스 취업자의 비중이 2005년과 비교하여 2005년 증가함(<표 6> 참고).
- 2005년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의 37.9%가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에 취업하였으며, 2006년에는 그 비중이 39.5%로 증가함.
-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여성 취업자의 10% 이상 취업하고 있음. 도소매업의 경우, 그 비중이 2005년 18.5%에서 17.0%로 감소하였음. 제조업 취업자 비중 역시 2005년 15.4%에서 14.8%로 감소함.
- 그리고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1% 미만으로 나타남.
- 한편 남성 취업자 가운데 그 비중이 큰 산업은 제조업으로 2005년 남성 취업자의 31.8%, 2006년 28.6%가 취업하였음.
- 여성과 동일하게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에 취업하고 있는 남성은 1% 미만으로 나타남.

<표 6>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천명, %)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공공개인 사업서비스
2005	여성	2,057	11	1	316	50	381	121	2	86	117	191	779
		100.0	0.5	0.0	15.4	2.4	18.5	5.9	0.1	4.2	5.7	9.3	37.9
	남성	1,739	17	3	553	164	316	108	7	78	47	195	250
		100.0	1.0	0.2	31.8	9.4	18.2	6.2	0.4	4.5	2.7	11.2	14.4
	전체	3,796	29	4	869	214	697	228	10	164	164	387	1,029
		100.0	0.8	0.1	22.9	5.6	18.4	6.0	0.3	4.3	4.3	10.2	27.1
2006	여성	1,969	7	1	290	57	335	99	3	88	110	200	777
		100.0	0.3	0.1	14.8	2.9	17.0	5.0	0.2	4.5	5.6	10.2	39.5
	남성	1,649	19	2	472	139	293	106	6	104	54	203	249
		100.0	1.2	0.1	28.6	8.4	17.8	6.5	0.4	6.3	3.3	12.3	15.1
	전체	3,618	26	3	762	196	628	206	9	192	165	404	1,026
		100.0	0.7	0.1	21.1	5.4	17.4	5.7	0.3	5.3	4.6	11.2	28.3

■ 직업별 분포

여성 취업자의 1/3 이상이 사무직에 종사

- 졸업·중퇴 청년층 여성 취업자 가운데 사무직 종사자 비중은 2005년과 2006년 모두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남(<표 7> 참고).
- 사무직에 이어 서비스판매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비중은 2005년 21.6%, 2006년 18.9%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18.3%와 20.7%로 나타남.
 -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 농어업숙련직, 기능 관련직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2005년과 2006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남.
 - 한편 남성에게서는 사무직 집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2006년 현재 사무직(17.7%)은 서비스판매직(17.6%), 장치기계조립직(16.6%) 등과 함께 남성의 취업자 비중도 높은 직종임. 그러나 청년층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음.

<표 7> 졸업·중퇴 청년층 남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단위: 천명, %)

		전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 숙련직	기능 관련직	장치기계 조립	단순 노무직
2005	여성	2,057	2	376	305	789	444	7	15	82	36
		100.0	0.1	18.3	14.8	38.4	21.6	0.4	0.7	4.0	1.8
	남성	1,739	4	127	238	302	305	16	270	308	168
		100.0	0.2	7.3	13.7	17.3	17.6	0.9	15.5	17.7	9.7
	전체	3,796	6	503	543	1,091	749	23	285	390	205
		100.0	0.2	13.3	14.3	28.7	19.7	0.6	7.5	10.3	5.4
2006	여성	1,969	0	407	304	756	372	3	12	77	37
		100.0	0.0	20.7	15.4	38.4	18.9	0.1	0.6	3.9	1.9
	남성	1,649	1	136	246	292	290	17	236	273	157
		100.0	0.0	8.3	14.9	17.7	17.6	1.0	14.3	16.6	9.5
	전체	3,618	1	544	551	1,048	662	20	248	350	194
		100.0	0.0	15.0	15.2	29.0	18.3	0.5	6.9	9.7	5.4

3. 청년층 남녀의 취업 준비

■ 직업훈련 경험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 청년층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남

- 2005년과 2006년, 청년층 여성의 약 20%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 참고).
- 2005년 청년층 여성 가운데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은 20.6%, 2006년에는 19.4%였음.
 - 그리고 2005년 청년층 여성의 10.6%가 재학·휴학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에 9.5%의 청년층 여성이 재학·휴학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함.
 - 반면 청년층 남성 가운데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은 2005년 13.5%, 2006년 12.9%로 나타남.
 - 청년층 남성 역시 재학·휴학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과 2006년, 청년층 남녀 모두 재학·휴학 중, 졸업·중퇴 후 등 특정 시기의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은 감소한 반면, 두 시기 동시 참여자 비율이 남녀 모두 0.3%p 증가함.

<표 8> 청년층 남녀의 직업훈련 경험 시기

(단위: 천명, %)

		전체	없음	재학/휴학 중	졸업/중퇴 후	재학/휴학 및 졸업/중퇴 후	미상
2005	여성	5,141	4,080	545	408	106	3
		100.0	79.3	10.6	7.9	2.1	0.1
	남성	4,785	4,137	344	253	49	1
		100.0	86.5	7.2	5.3	1.0	0.0
	전체	9,926	8,216	889	661	156	5
		100.0	82.8	9.0	6.7	1.6	0.0
2006	여성	5,070	4,087	481	377	124	2
		100.0	80.6	9.5	7.4	2.4	0.0
	남성	4,765	4,152	326	222	63	1
		100.0	87.1	6.8	4.7	1.3	0.0
	전체	9,835	8,239	807	599	187	3
		100.0	83.8	8.2	6.1	1.9	0.0

■ 직업훈련 기관

청년층 여성, 남성에 비해 공공직업훈련기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 남녀 모두 직업훈련 기관 중 사설학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참고).

- 2005년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층 여성의 72.0%, 2006년에는 70.2%가 사설학원을 이용하여 직원훈련에 참여함.
- 청년층 남성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경험자의 절반 이상인 57.1%(2005년), 59.5%(2006년)가 사설학원을 이용하였음.
- 공공직업 훈련기관을 이용한 청년층 여성의 비율은 2005년 9.0%에서 2006년 8.6%로 0.4%p 감소함.
- 청년층 여성과 대조적으로 남성은 직업훈련 경험자의 21.8%(2005년)와 20.6%(2006년)가 공공직업 훈련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청년층 남녀의 직업훈련 참여 기관

(단위: 천명, %)

		전체	공공직업 훈련기관	민간직업 전문학교	사업체 훈련기관 사업체부설연수원	사설 학원	기타
2005	여성	1,058	95	64	50	762	87
		100.0	9.0	6.0	4.7	72.0	8.2
	남성	647	141	60	57	369	20
		100.0	21.8	9.3	8.8	57.1	3.0
	전체	1,705	236	124	107	1,131	107
		100.0	13.9	7.3	6.3	66.3	6.3
2006	여성	982	85	52	55	689	101
		100.0	8.6	5.3	5.6	70.2	10.2
	남성	612	126	47	49	364	25
		100.0	20.6	7.8	8.1	59.5	4.1
	전체	1,593	211	99	105	1,053	126
		100.0	13.2	6.2	6.6	66.1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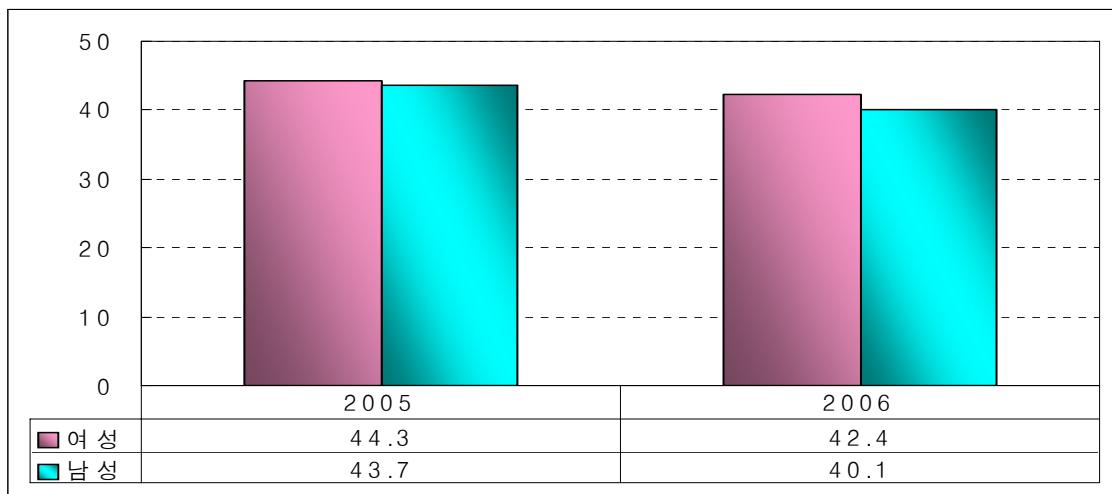
■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비율은 청년층 여성이 남성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2005년과 2006년 청년층 여성의 40% 이상이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경험(이하 ‘직장 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고).
 - 2005년 44.3%였던 청년층 여성의 ‘직장 체험’ 비율은 2006년 42.4%로 0.9%p 감소함.
 - 남성은 여성보다 약간 낮은 2005년 43.7%(2005년), 40.1%(2006년)로 나타남.
- 2006년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경험 있는 청년층 남녀의 1/4 이 ‘한 달~3개월 미만’의 ‘직장 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0> 참고).
 - 2006년 ‘직장 체험’ 청년층 여성의 26.7%가 ‘한 달~3개월 미만’, 21.6%는 ‘1년 이상’, 21.0%는 ‘3개월~6개월 미만’의 ‘직장 체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청년층 남녀의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비율

(단위: %)



<표 10> 청년층 남녀의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기간 : 2006년

(단위: 천명, %)

	전체	보름 미만	보름~ 한달 미만	한달~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여성	2,151 100.0	106 4.9	216 10.0	573 26.7	451 21.0	340 15.8	466 21.6
남성	1,911 100.0	77 4.0	150 7.8	500 26.2	423 22.1	391 20.5	370 19.4
전체	4,062 100.0	183 4.5	365 9.0	1,073 26.4	873 21.5	731 18.0	836 20.6

청년층 남녀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직장 체험’을 함

- 2005년과 2006년 ‘직장 체험’ 청년층 여성의 50% 이상이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표 11> 참고).
-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직장 체험’을 한 청년층 여성의 비율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56.2%, 52.4%로 3.8%p 감소함.
 - 또한 전일제 직장 취업한 경우도 2005년 29.9%, 2006년 26.8%로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현장 실습 참여, 기업 인턴 사원, 정부 지원 직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장 체험’을 한 청년층 여성의 비율이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각각 5.3%p, 1.3%p, 0.2%p 증가하였음.
 - 청년층 남성의 경우에도 2005년 58%대였던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의 ‘직장 체험’ 비율 2006년 40%대로 감소하였음.
 - 반면, 전일제 직장 취업을 통한 ‘직장 체험’ 비율은 2005년 30.8%에서 2006년 34.3%로 3.5%p 증가하였음.

<표 11> 청년층 남녀의 직장 체험 형태

(단위: 천명, %)

	전체	전일제 직장 취업	시간제 아르바이트	학교의 현장 실습 참여	기업 인턴 사원	정부 지원 직장 체험 프로그램
2005	여성	2,278	1,280	255	33	28
		100.0	56.2	11.2	1.5	1.2
	남성	2,092	1,224	186	26	13
		100.0	58.5	8.9	1.2	0.6
	전체	4,370	2,504	441	59	41
		100.0	57.3	10.1	1.4	0.9
2006	여성	2,151	1,128	356	61	31
		100.0	52.4	16.5	2.8	1.4
	남성	1,911	933	248	60	14
		100.0	48.9	13.0	3.1	0.7
	전체	4,062	2,061	604	120	45
		100.0	50.7	14.9	3.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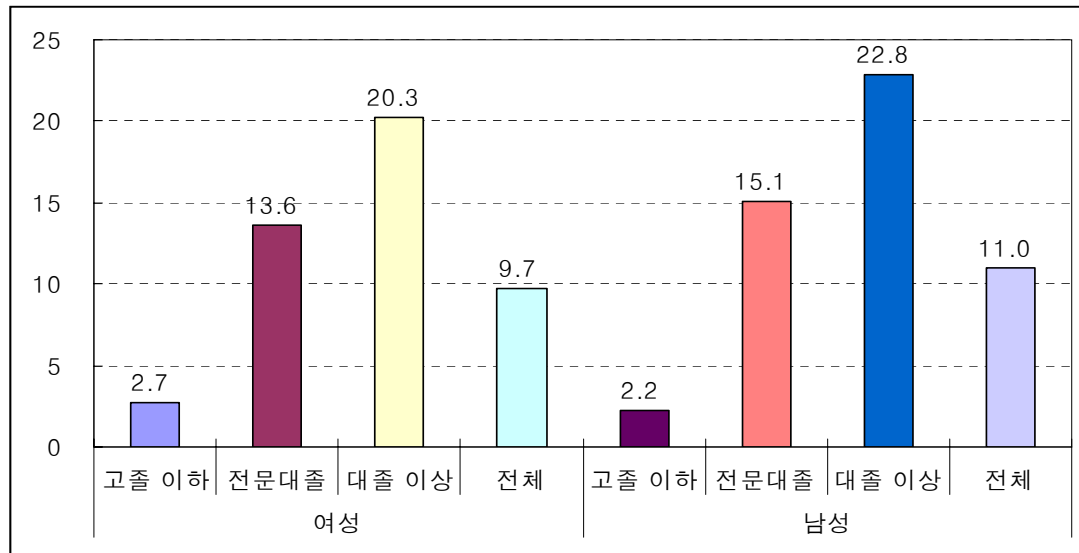
■ 취업 시험 준비

일반 기업체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약 절반에 불과

- 남녀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 시험 준비자 비율이 높아짐(<그림 2> 참고).
 - 2006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시험 준비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학력 집단은 대졸 이상(20.3%), 가장 낮은 집단은 고졸 이하(2.7%)로 나타남.
 - 남성 역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2.8%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졸 이하 집단은 2.2%에 불과함.

- 남녀 모두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표 12> 참고).
 - 2006년, 취업 시험 준비 중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9.2%가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취업 시험 준비자 가운데 46.9%가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임.
 - 고졸 이하의 여성 가운데 52.5%가 기능 분야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역시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자의 비율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일반 기업체 입사 시험 준비자의 비율이 20.9%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여성 가운데 일반 기업체 입사 준비자 비율은 남성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0%에 머물고 있음.

〈그림 2〉 청년층 남녀 비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취업 시험 준비 비율: 2006년
(단위: %)



〈표 12〉 청년층 남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시험 준비 분야 : 2006년
(단위: 천명, %)

		전체	언론사	국공영 기업체	일반 기업체	교원임용 고시	고시	일반직 공무원	전문분야 자격증	기능분야 자격증	기타
여성	고졸 이하	38	0	1	6	0	1	5	0	20	3
		100.0	2.1	3.8	17.2	0.0	1.6	13.7	1.2	52.5	7.9
	전문대졸	54	0	5	8	2	1	25	3	7	4
		100.0	0.0	9.3	14.3	3.6	1.1	46.9	5.0	12.4	7.4
	대졸 이상	165	5	12	14	29	8	71	10	8	7
		100.0	3.3	7.5	8.6	17.4	5.0	42.9	6.2	4.7	4.4
	전체	259	6	19	28	31	9	101	13	34	14
		100.0	2.4	7.3	11.0	11.8	3.6	39.2	5.2	13.3	5.5
남성	고졸 이하	30	1	2	5	1	0	5	2	12	1
		100.0	4.3	8.2	16.9	2.2	0.0	15.8	7.0	41.1	4.6
	전문대졸	44	0	2	10	0	0	19	4	6	3
		100.0	0.8	4.0	22.2	0.0	0.0	42.9	9.5	13.9	6.7
	대졸 이상	206	2	16	44	11	13	93	20	3	5
		100.0	1.0	7.7	21.2	5.4	6.2	45.2	9.7	1.3	2.4
	전체	280	4	20	58	12	13	117	26	21	9
		100.0	1.3	7.2	20.9	4.2	4.5	41.7	9.4	7.5	3.3

주. 청년층 여성 가운데 ‘미상’ 2천명은 제외하였음.